

사부대중 칼럼

종교인 소득세 납부 시행 미루지 말자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한 종교인(교직자)수는 불교 49,408명, 개신교 95,596명, 가톨릭 14,596명을 포함하여 364,797명이다. 이 수치에는 정부가 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속인, 역술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종교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50만 명 정도가 된다.

국세청장 고발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후로도 계속 검토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 항목에 대하여 열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부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등이다. 목회자, 승려, 신부 등의 소득은 이 항목에 있지 않다, 즉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혹은 단체)만 세금을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규정이 없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을 규정하는 민법의 제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가 민법과 세법 등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을 육성하고 보호,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19가지 정도의 각종 세금을 면제 혹은 감세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우리 법은 비영리법인에게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종교인은 영적 봉사자인가, 근로자인가? 둘째,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인가? 셋째,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등이다.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던 2006년 무렵, 극렬하게 과세불가 입장을 견지하던 개신교 목사들이 이 즈음은 많이 바뀌었다. 박 장관 발언 이후 한국교회인론회는 "종교인 과세,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는 소속 목사들의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대한성공회도 지난 6월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목사들이 매일 받는 사례비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지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음도 현실이다.

종교인 과세는 현대의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건설과도 관계가 깊다. 종

교인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서 확보되는 세원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은 박 장관이 밝혔던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며 실정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 까지 행해졌던 여론의 반향이나 최근 보도된 대부분의 언론사 사실에서도 종교인 과세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주장했던 주류 개신교 단체들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종교인 소득세 납부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든 사실도 밝혔다. 그러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 즉시 종교인에게 과세를 시행해야만 한다.

지난 7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가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면 "8월에 세법 개정을 발표한다. 이 때 목회자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큰 틀에서 납세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실무자의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社說

수도권불교 포교대책 시급하다

대한민국 인구 1/3이 모여사는 수도권은 종교에게는 중요한 포교·전도의 장이다. 하지만 불교는 수도권에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중 불교를 믿는 비율은 약 16% 인 반면, 개신교는 23%, 천주교는 13%에 이른다. 천주교의 상승세는 가히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다. 신도시 포교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13개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중 개신교는 72.2%, 천주교는 17.7%, 기타 종교는 6.3%의 종교용지를 확보했다. 반면 불교는 한국SGI, 천도교, 영성교보다 낮은 3.8%에 그쳤다. 수도권 2등 종교 위치도 이제는 위태로울 지경이다. 아니, 아만큼 버틴 것도 다행인 일이다.

수도권불교의 이런 상황은 기존 교구 지역들이 현행 국가 행정 구역이 불일치되는

데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할교구 분구화를 주요골자로 한 불교사회연구소의 '수도권불교 활성화 방안'은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기존 수도권 교구를 현행 행정구역에 맞게 재구획하고 직할교구를 서울 강북, 강남 인천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었다. 큰 틀에서의 직할교구를 대리구 형식으로 세분화하고 교구본사대리사찰을 지정해 짜임새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분구된 지역을 다시 2-3개 지역으로 묶어 총 18개 지역을 지정하고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획기적인 발상이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불교사회연구소의 방안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타개책이 있다면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무엇이라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공직자 종교편향

장애인 판사로 잘 알려진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종교편향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부목사 사택을 이례적으로 비교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지역의 성시화 운동도 주도했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행적은 7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논란 거리였다. 여야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김 후보자는 당당했다.

김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판결이 종교 편향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지적했던 것은 판결보다는 그 과정에 있던 일련의 편향성이었다.

사람의 교회 지하도로 점유에 대해 서울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서초구청장은 이

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7월 10일 구정 질문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회' 사안은 이제 서초구와 주민간의 소송으로 변질 위기에 봉착했다. 화합의 상징이 돼야 할 종교가 분란과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초, 불교계의 반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생겼고, 지난해까지 1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8건이 종교차별로 최종 결론이 났고, 이들 모두 개신교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사례였다.

개신교인들의 교리를 비판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공직자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춰 세상을 재단한다면 그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유흥을 가득한 지옥이다. 예수님도 거리의 고성 기도보다 골방에서의 조용한 기도를 사랑한다고 했다.

불자 세상보기

종립학교에 불교사학과 개설해야



진관 스님 종단협 산하 불교인권위원장

우리 국민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등 27개 종단이 가입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불교 수용과정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민족의 혼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 역사를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위에 존재해 온 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불교 역사는 승단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리민족이 수용했던 교학불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승나 선불교는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도교의 한 부분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민족이 수용했던 불교 역사를 말리한다면 한국불교의 희망적 미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국가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기 민족의 근간과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 불교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불교의 간절한 수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이차돈의 순교 역사를 바로 알기를 바란다. 또한 조선 시대 국가에 의해 탄압 받던 불교 역사를 회복하고 전승하려면 보우, 서산, 사명, 지안 선사들 비롯해 근대에 이르러서는 백용성 스님, 만해의 불교사상과 불교역사의 존치를 우리가 전승해야 한다. 그것이 후세에 남겨진 우리 불자

들의 사명이요 과업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취볼 때 불교역사를 바로 세게 전승하기 위해 먼저 역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배움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에 동국대, 중앙 숭가대, 위덕대, 금강대 등 불교 종립대학에 불교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불교사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종립대학에는 불교사학과가 개설돼 있지 않다. 또한 강원과 선원 등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즉 불교역사를 전공해 불교역사를 가르치는 학과가 없는 것이다. 물론 불교계 대학에서도 불교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데 일반대학에서 불교역사를 가르칠 이 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불교계는 우리 민족이 수용했던 불교역사를 바로 게 고찰해야 한다. 우리에게 현존하는

역사의 기록을 논한다면 고려 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 각훈의 <해동고승전>,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등을 들 수 있다.

불교사학과를 설치해 이런 책들부터 깊이 있게 공부 한다면 올바른 불교사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즘은 아무리 대학들의 현실이 취업 잘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좋은 인기학과만을 선호하지만, 종립학교만이라도 우리 불교의 뿌리를 찾는 불교역사학과를 만들어 우리 불교의 근간을 바로 알게 해야 한다.

근대에 와서 우리 민족불교의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 침해 받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불교인들은 물론 한국의 정치인들 또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립학교 안에 불교역사학과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금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